

##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7호 발표 울산에서 시작하는 혁신과 변화! ‘국가균형발전의 개척자’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월 10일(수) 09시 4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인 전은수 변호사(3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전은수 변호사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태어나 2살부터는 울산에 거주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했고 원만한 교우관계로 학급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무게를 뒀다. 주말에는 학생들을 직접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서점에 데리고 가거나 공원에서 체육활동도 함께하는 등 정이 가득한 교사였다.

교사로 재직하던 5년 쯤 되는 해,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었지만 교실을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고 고심 끝에 변호사의 길에 도전하게 된다. 낮에는 교사로 근무하고 밤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 결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변호사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왔다.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던 시기에는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전 변호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는데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청년문화, 주거,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민선7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도 맡아 생활밀착형 시민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지와 사회보장 증진에도 일조했다.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활동에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며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던 시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자문하는 것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하여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고 현재까지도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전은수 변호사는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헌신해왔기 때문에, 그간 갈고닦은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혁신과 변화의 지역균형시대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전은수 변호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초저출생과 지역격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 되어 소득, 교육, 복지 등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전은수 프로필

<붙임 2> 전은수 인재 소개

## □ 일반사항

- 1984년 부산 사하구 출생(39세)
- 울산 우신고등학교 졸업(2003)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사회)(03학번)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석사 졸업(2015)



## □ 주요 경력

- 대전 샘머리초, 울산 삼신초등학교 교사('07~'12)
- 법무법인 삼성, 법무법인 법조 등 변호사('15~'21)
-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법률고문변호사('17.10~'21.12)
-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19~'20), 감사('21)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19~'21)
- UBC 울산방송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20.03~'21.12)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20.06~'21.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20.06~'21.12)
-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20~'21)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사('21)
-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청년교육분과('21.9~'23.9)
-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21~'24.01)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 겸 제3사무총장 ('22.07~23.07')
-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23.09~현재)

## □ 포상 실적

- 2023. 12. 14.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청백리상
- 2023. 12. 07. (사)한국감사협회 2023 자랑스러운감사인상 최우수상
- 2021. 10. 2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 2020. 12. 22. 울산광역시장 표창패
- 2019. 12. 09.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 표창패
- 2019. 11. 21. 울산지방경찰청장 감사장
- 2018. 12. 21. 울산광역시장 표창패

## 2

### 전은수 인재 소개

####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

전은수 변호사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달동네에서 태어났다. 2살이 되던 해 울산으로 이사를 했지만 허름한 주택가의 셋방살이 살림이 계속될 정도로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고, 친구들을 만나면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교우관계를 만드는데 신경을 썼다고 한다. 전은수 변호사의 밝은 성격은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 초등교사가 변호사가 된 사연

전은수 변호사는 어려운 집 사정으로 인해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공주교대에 진학했다. 24살에 교사로 임용되어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에 인성교육에 집중했다. 교실 테두리를 벗어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꾸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꿈은 교사였던 전은수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척박해지던 지역사회를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기회가 많은 법조인의 길을 걸기로 했고, 결국 주경야독 끝에 부산대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 울산 지역사회의 지킴이

흔히 변호사를 떠올리면, 대형로펌, 높은 성공보수, 안정적인 전문직 직업 등을 연상한다. 그러나 전은수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를 잊지 않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울산 시민단체들과 공익재단 등 울산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매진했다. 또한 울산경찰청 자문위원, 울산교육청 위원, 울주군과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울산 지킴이를 자처했다.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한국국제봉사기구(KVO) 및 울산하나센터 자문위원과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했고,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정책 개발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일조했다. 또한 울산시 이주여성 지원, 가정폭력피해 여성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활동했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여 울산시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이끌며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왔다. 한국에너지공단 감사로 일한 것 역시 공단본부가 울산에 터를 잡으면서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 **울산이 ‘소멸우려지역’이 된 이유는 지역정치의 실패 때문**

전은수 변호사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감과 수도권 일극화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울산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년만에 지역경제침체, 인구유출로 각종 지표가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광역지자체 중 소멸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반면 수도권은 젊은 인구와 경제인프라가 집중되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놓였다.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이 침체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 지역정치의 실패를 꼽았다.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정주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경제기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됐는데, 지역발전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지역토호세력들이 지역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야 하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전은수 변호사가 교사와 법조인에 이어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경기침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심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은수 변호사는 소득·교육·의료·인구 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때로는 교육자로서, 때로는 법률가로서, 때로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살려 대한민국의 삼중고를 해소하는 것이 전은수 변호사의 정치 비전이다. 이제 지역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개척자, 젊은 리더들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